

가정예배 안내서

8

1993

충현의 만나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전 교구의 영적 부흥과 배가 성장을 위하여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8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8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 · 김수상 · 이종대 ·
정광욱 · 박정규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서론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였던 ‘누가’라는 데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의 저술 연대는 바울의 투옥 생활이 끝나던 AD 62년 이전이라고 본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본 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2년 동안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서의 수신자는 서두에 있는 ‘데오빌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서는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 개종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특성과 사역이 본 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본 서의 내용은 ① 인자의 출현(1:5 ~ 2:52) ② 인자의 공생애 준비(3:1 ~ 4:13) ③ 인자의 사역(4:14 ~ 9:50) ④ 인자의 배척받음(9:51 ~ 19:27) ⑤ 인자의 고난과 부활(19:29 ~ 24:53)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7:19)

본문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명의 문둥병자가 자신들의 병든 육신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열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홉 명의 문둥병자같이 감사하는 일에 무디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만 안주하여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에 놀라와 하며 그것에만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이적을 우리의 삶속에 가지고 산다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으로 찬미하게 하십니다.

▶ 기도 /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17:21)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20절). 여기서 “볼 수 있게”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징조로 미래를 보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용어는 조사하는 것, 기다리는 것, 과학적인 연구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고 그 나라의 진행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거대하고 외부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중 말론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 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 주님의 일을 분주하게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행 16:6-11).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임같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마 24:27,30). 먼저 하늘에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마 24:30,31).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 25:13).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룻의 치를 생각하라”(32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어 준비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 아니하겠느냐』(18:7)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낙망하게 됩니다. 기도가 단순한 것인 만큼 낙망도 단순합니다. “낙망하다”라는 단어는 열정을 상실하고 너무 낙심하여 죽기를 바라는 신자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맑은 공기를 들여마시게 됩니다. 하늘의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시는 자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낙망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같은 기도에 대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마 6:5-15). 이 말씀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질식하지 않는 한, 호흡하는 것을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생활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온갖 갈망이며,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 이같이 거룩한 갈망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충실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 복 주심을 기원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를 원합니까? 아니면 낙망하기를 원합니까?

▶ 기도 /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찾고 구함으로 참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사역 위에 일곱배의 권능을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18:17)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시고 교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릇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판단자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행동은 첫째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 앞에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겸손과 믿음과 신뢰를 예증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것은 곧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만한 자라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 기도 /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꾀계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소서.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18:27)

본문의 부자 청년인 관원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을 때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부정직함입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에게로 나와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결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정직한 면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 '선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탐욕이 가득차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올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영생이 무엇인가 행해야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실천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행동이 결여되고 말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를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손가락으로 우리의 삶의 부정직한 영역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8:42)

본문은 예수님의 수난을 세번째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뱀음을 받게 될 것이요 채찍질을 당할 것이요 결국 죽음을 당할 것이나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여리고 길가에 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눈을 떠야 할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간구도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서는 그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속에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소경이요 구걸하는 거지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오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서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소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19:10)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낙인된 자입니다. 그것은 같은 동족의 재물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어 로마제국에 바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를 로마의 앞잡이로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을 땅에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의 과거의 모든 일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자신의 재물의 반을 즉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탈세한 것이 있다면 탈세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순간적으로 부자에게 거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에 물질을 소유함으로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웃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심령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삭개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으로 나타내었습니까? 진정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는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며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소서. 교회의 직원들이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 』(19:17)

오늘 본문은 므나의 비유로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이며, 먼 나라로 갔다는 말씀은 그의 재림이 인간이 보기에는 더딜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며, 장사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므나는 화폐단위로서 한 므나는 백 드라크마 혹은 백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많은 돈입니다. 본문 13절에서 특히 주의할 사실은 열 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므나씩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여기 므나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가 재능과 은사에 대한 것이라면 므나의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한 므나로 열을 남겼고 또 한 사람은 한 므나로 다섯을 남겼으나 한 사람은 한 므나를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의 한 므나로 열을 남기고 한 므나로 다섯을 남긴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고 한 므나를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성하는 주역들이 됩시다.

▶ 기도 /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먼저 주님앞에 겸비하여 고침을 받게 하소서.

『이르시되 너희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19:3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구약(슥 9:9)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고 크고 좋은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말은 전쟁에 사용되었지만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었기에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보잘 것 없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또한 나귀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나귀로 사용하십니다. 과연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모시는 나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잘 것 없는 나귀새끼인 나를 주님은 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십자가와 상관없는) 분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즉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 위해 우리는 낮아지고 또한 깨끗한 나귀새끼가 되어 호산나 높이 찬송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신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19:46)

성전은 마치 시장바닥과 같이 장사가 한창이었고 또한 수도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소와 양을 팔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가 되면 도처에서 물려와 짐승들을 사려는 사람으로 성전은 붐볐습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고른 짐승을 데리고 올 수 없었고 그곳에서 파는 비싼 짐승을 사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불법의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이란 은밀한 영적 현신과 기도와 묵상의 성소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서는 안되며 장사꾼들이 드나들며 소음과 쓰레기가 난무하는 악취나는 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곤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 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같은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하고 자신을 살피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안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나의 몸과 영혼을 깨끗게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라.

▶기도 / 아무일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몸과 영혼을 깨끗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곧 찬양이게 하소서.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20:14)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소작농부는 유대인을,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과거의 역사와 예언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살해하였고 요아스 통치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아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쳤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의 명령에 의해 툇로로 쫓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자신도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뜻을 배척하며 그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18절의 말씀대로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결국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지금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서 후에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천국 포도원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식구들이 서로를 헤아려주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게 하소서.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에게 ……』(20:25)

당시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백성들이 두려워 이 일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문제를 제기하여 로마의 법률에 올무를 걸어 주님을 처단하려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인두세를 납부했으나 갈릴리 사람들은 헤롯 안디바스의 영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예수님을 책잡아 처단하려는 간계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 하면 총독에게 보고하여 로마법으로 체포할 것이며 만약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십계명 중 제2계명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유대인의 손에 처단하려고 한 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를 바치고 바치지 않는 것은 이방신을 경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명답을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야의 것은 물질적인 왕국이며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왕국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우상숭배하려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물질, 봉사, 감사, 영광을 쉬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남녀 전도회가 본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잃어버린 천국백성들을 모두 찾게 하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20:3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읽었고 내세와 부활과 천사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6절을 질문의 발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만일 한 부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을 잃게 될 경우 그 남편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야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반박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즉 부활의 상태는 결혼이나 출산이 없으며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으므로 자녀 생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의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문 38절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죽은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 기도 /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의 수고가 모두 열매맺게 하소서.

찬송 / 351장 성경 / 눅 20:41-47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20:46)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배우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때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적인 통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용된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율법 교사들의 교만함과 탐욕, 그리고 위선을 절대로 배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안식일이나 입는 축제를 위한 복장을 갖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법정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과부들이 맡긴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이런 겉치레와 직권 남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또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생활에서도 위선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 기도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이 뿌리를 깊이 내리어 현지인들의 헌신자가 많아져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하게 하소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21:4)

예수님께서서는 헌금하는 것을 유의해서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감명깊게 보셨습니다. 그 과부는 두 렵돈을 헌금했습니다. 렵돈은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부자들이 많은 헌금하는 것보다 과부의 두 렵돈 헌금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난한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으나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율법 교사들의 위선적인 경건과 과부의 참된 경건을 대조시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겉으로 얼마나 많은 액수를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치는 헌금에 하나님께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깃들어 있느냐가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각자 자신의 수입 중에서 몇 퍼센트를 헌금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달갑지 않게 내는 헌금, 인색하게 바치는 헌금, 위선이나 선전을 위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겠습니다.

▶ 기도 / 감사와 헌신과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소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21:19)

우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스스로 메시아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들간의 전쟁과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끝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견딤으로서 부활의 삶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의 포위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는 우주적인 징조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때에 머리 들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기도에 응답하사 독일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21:36)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나무들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닥쳐오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보이면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생계의 걱정애 깊이 빠져서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부요치 못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생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생계 걱정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서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방탕입니다. 방탕은 마음을 무디게 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착각을 가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 즉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이 생각하면서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매일 매일을 생의 마감인 것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 기도 / 항상 기도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께 날마다 새힘으로 채우시고 애굽 교회에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주소서.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22:13)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웠으며 유다의 배신 행위가 이 음모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게 권력가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권력과 금전과 배신, 이것들이 예수님을 죽일 현실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권력, 금전, 배신 등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대 권력가들과 유다는 민중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권력가들은 항상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악을 저지릅니다.

한편 예수님은 사단에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기 위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너무나 복잡해서 방을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즉 큰 다락방과 그 집 주인의 마음을 준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심부름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간단한 수고로 예수님이 예비해두신 큰 다락방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일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자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이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김주경 선교사 가정위에 성령충만함을 주소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22:20)

예수님은 만찬석상에서 이 음식은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갖는 마지막 이별의 식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는 제자들에게 영광된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만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희생의 의미를 줌과 동시에 계속해서 만찬을 시행하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시는 희생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준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며, 또한 새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희망을 확신케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믿는 자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새 언약의 백성되게 해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의 사역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22:26,7)

군인 아파트 지역 아이들은 아버지가 상사나 중령이냐에 따라 자신들의 높낮이를 따지고 강남 아파트 지역 학교 아이들은 아파트가 몇 평이냐에 따라 어깨 높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생리적으로 누가 크냐를 따지게 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남을 섬기는 법을 생활로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 주간이 가까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머리는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인생의 원초적인 문제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신자 생활의 높낮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장유유서의 순서가 거꾸로 되며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식탁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왕같은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이 자리에 올라가겠지만 마음 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연인의 욕심을 신앙의 겸손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사탄이 우리를 밀까부르듯이 놀리게 될 것이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읍시다. 신앙의 겸손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삶에 옮기는 생활을 합시다.

▶ 기도 / 충현교회가 섬기는 큰 자들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김은태 (홍콩) 선교사의 사역에 은혜를 충만히 주시어서 홍콩이 복음화되고 홍콩을 통하여 중국과 북한 선교에도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22:45,46)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자신의 바램과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육신을 가진 약한 사람들이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자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밤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모욕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다가와도 그 모든 시험들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수 밖에 없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있을 때, 여유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둘러싸여 살고 있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 기도 /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사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22:61,62)

예수님이 병사들의 손에 잡혀 대제사장 집 마당으로 끌려들어 가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몰라라 하고 도망갈 수도 없어 멀찍이 따라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가와 '당신도 나사렛 당이라'고 다구치자 엉겁결에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토록 자신 만만하게 주와 함께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고 장담한 베드로, 그의 결심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경황없으신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눈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이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 보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약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사실이 아니라 실패 후에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 보십시오.

▶ 기도 / 우리 주변에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 위에 영적 부흥과 모든 필요를 채우소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23:12)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는 당파가 많았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의식과 현실 정치 상황을 중시하는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 정치계에서는 로마 총독 세력과 마찬가지로 로마 당국에서 세움을 받았지만 유대인 자체의 왕인 헤롯왕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이익이 달랐기 때문에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적으로 심한 갈등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을 놓고는 이 복잡한 계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헤롯과 빌라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웃었습니다.

개들은 뼈다귀를 놓고 싸우다가 다른 동네의 개가 오면 한꺼번에 힘을 합쳐 물어 뜯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서로 싸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동의 적으로 알고 일심으로 달려 들어 혈투고 핍박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할 때, 더나아가 신앙인으로 빛된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공모하듯이 온 세상이 다 여러분을 반대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처럼 담대히 맞설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기도 /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여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이키게 하소서. 사랑복과 예배다부원들에게 더욱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푸소서.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3:21)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님은 처형하라고 소리지르게 하였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의 병고치시는 능력을 보고 그를 억지로라도 왕을 삼아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고 말씀도 듣고 따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2:23-4).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따르지만 저들이 머지않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거나 사람들을 의존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누구에게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머지않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의 무릎으로 일해야 합니다.

▶ 기도 /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하소서. 지구상에 있는 수 많은 기아들에게 떡과 복음이 풍성히 전달되게 하소서.

『……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23:34)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욕하고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죄로 갚지 마시고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신상담이란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지 못하면 분해서 편한 잠을 자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7:60). 바울도 기도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딤후4:16). 기도만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희생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결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의 말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12:20)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그 원한을 갚을 방도를 구하는 대신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사랑으로 원수를 감싸는 이것,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테반과 바울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삽시다.

▶ 기도 / 사랑의 실천은 작은 용서, 마음으로 부터의 용서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찬송 / 519장 성경 / 눅 23:39-43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23:43)

갈보리 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로 죽은 죄인의 십자가요, 하나는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고 죽은 자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죄 없는 죄인으로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가 주님의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 죄수를 못박게 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욕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이 좌우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 죄인이야말로 마음이 강박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도 않고 마음의 악을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형벌이 예수님 때문에 진 것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구원하라고 재촉하면서 악담과 저주를 마구 퍼부은 것입니다. 또 다른 편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태도는 회롱과 조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무리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달려 조롱하던 자를 꾸짖고 그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교만한 한 편의 강도에게는 멸망을, 회개하는 강도에게는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간청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천국에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삶 속에서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애인들에게 삶의 비전과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소서.

『백부장이 ……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23:47)

첫째, 육시부터 정오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것은 어두움의 권세와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희생의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진하여 생명을 희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이것은 생사의 문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백부장이 예수님이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애통하였는데, 이는 주님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의미하며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의 죽음은 필요했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마태와 요한도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기었듯이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떠났을 때에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로마인의 풍습대로 화장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빈 돌무덤에 장사지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온 여인들이 안식일의 예비일이므로 급히 내려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예비하였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희생을 피하거나 숨지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고난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이 땅위에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평화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박히고 ……”(24:7)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내고 첫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죽인자들은 승리감이 넘친 안식일을 맞이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비애감 속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일을 보내고 새벽 미명에 준비했던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왔으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당혹해 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말을 들려주고 이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언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달려가 전하였으나 사도들은 허탄(터무니 없는, 쓸데 없는)한 말로 여겼습니다. 그중에 베드로가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사단의 어떠한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능히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믿었으나, 사도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으며,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기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죽은 예수님을 보러 교회에 나와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의심많은 교인들이 아닌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의 현장에 없었고,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듣지 못했고,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시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기도 /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미전도 족속에게 하루 속히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24:34)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며 일어났던 일들 즉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로바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선지자로 여겼으며,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인 로마인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빈무덤에 묻힌 것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각 자의 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본문의 칠십문도 중의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으로 예루살렘이 떠들석하자 대제사장들의 격분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이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권력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 다니다가 예수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정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하며 의문이 쌓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해주자 이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확신과 뜨거운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과 뜨거운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나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버리지 말고, 더욱 주님을 굳게 주님 붙들고 확신과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군사·정치·학원 모든 면에 안정과 번영을 주소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24:39)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과 우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유대 종교가들은 심히 당황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억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기절했다는 설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설과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는 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설, 예수님을 본 것은 유령을 본 것이라는 설을 주장하면서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발과 손을 보게 하시면서 만져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므로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구체적인 확증을 보여주시고 있으며,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수와 부활의 기초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낙망과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환희를, 흑암과 죄악의 멸망에 잠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죽은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기초한 산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환희와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복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소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24:5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예언의 이루심을 본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최후의 명령과 승천하시면서 하신 축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메시아 주님에 대한 증인의 삶에는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에 머물라는 명령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아직 증인이 되기에는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담대하게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잠시 이별하는 것은, 인간 사이의 이별과는 다른 축복의 이별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축복하신 손은 병자를 고치신 손이요, 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의 손이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못박힌 사랑의 손입니다. 이 축복의 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하시며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또한 주님의 승천은 승리의 표징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요, 제자들의 승리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요, 믿는 모든 자들의 죄와 멸망에서 구속하며 승리의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 축복의 손을 굳게 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산 증인이 됩시다.

▶ 기도 /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와 사명을 완성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9월에도 함께 하소서.

제 30과 죄의 자백

- 찬송 : 189장, 190장 · 성경 : 사 44:21-27
- 요절 : 사 44:22

“내가 네 허물을 뻑뻑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
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
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종을 책임 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하여 스스로 평화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1. 돌아오면 죄는 구름같이 사라집니다(21,22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죄의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보다 자신들과 주변 우상을 섬김으로(사44:17) 하나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뻑뻑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음’을 알게되리라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서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면 됩니다(요일1:9).

2. 돌아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23절).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함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죄인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든지 또는 성도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롬5:10,11).

*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도 않아야 하지만, 죄 지은 후에 곧 바로 그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적 용

1.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모든 죄가 다 깨끗히 사함받았다고 분명히 믿습니까?

2. 예수 믿은 후에 부족함으로 인해 범죄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속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31 과

죄에서 자유

· 찬송 : 208장, 209장

· 성경 : 요일 1:1-10

· 요절 :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대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1.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십니다(5절, 약1: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어두움(악)을 싫어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며 오히려 어두움을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즉 빛으로 스스로 나

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빛이 어두움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인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롬6:17-23).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면서 은혜안에 머물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죄를 자백하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감격을 누리며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적 용

1.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빛이시며, 사람은 어두운 죄의 종이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2.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은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마땅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32 과

죄와 투쟁

· 찬송: 204장, 205장

· 성경: 히12:1-14

· 요절: 히12: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병과 싸우며, 무지와 싸우며, 자신의 주변 환경과 싸웁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은 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1. 죄를 벗어 버리는 생활을 합시다. (1절)

죄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으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계속하여 그 죄의 종이 되어 어두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으나, 계속하여 성도의 신앙경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죄를 벗어버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합시다. (2절)

전쟁에 나선 군인은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참아 나갑니다. 성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목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으나 우리는 피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4절). 전심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롬6:11-14).

•적 용

1. 요즘 계속하여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간증을 나누어 봅시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순간 순간마다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는 죄의 유혹을 잘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33 과

회개의 열매

· 찬송 : 487장, 495장

· 성경 : 마 3:1-12

· 요절 : 마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불신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 천국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세례요한이 유대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하였을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시작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12절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지만, 천국이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2. 회개에 합당한 생활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8절)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선(회개한) 성도답게 그에 합당한 열매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열매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벧후3:10-12).

·적용

1.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2.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무엇 때문이며, 또 어떤 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즉 가정과 교회 등에서 나의 자세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